

## 출판계 움직임

### 著作權실무 전문가 양성講座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張仁淑)는 문예진흥원과 공동으로 '저작권 실무전문가 양성강좌'를 오는 3월8일부터 6월24일까지 문예진흥원 연수관(덕수궁내)에서 실시한다.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예술·출판계의 실무종사자들과 저작권 에이전시의 직원 및 관심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강좌는 기간중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9시까지 2시간씩 실시되는데, 수강료는 1인당 10만원(교재대 포함)이다. 문의처는 동위원회 사무국(393-6053~4) 또는 문예진흥원 연수관(762-5231~7).

### 국제도서전 참가에 6천만원 支援

재단법인 출판금고(이사장 정진숙)는 올해 각종 국제도서전 참가에 총 6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전시회는 다음과 같다.

▲제25회 볼로냐 아동도서전 ▲제8회 뉴델리 도서전 ▲제40회 동

# 새해들어 強勢 보이는 新刊

## 1월중 1,848種... 작년比 5.4% 늘어

새해들어 新刊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出協의 1월본통계에 따르면, 1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총2,919종을 발행, 그중 신간(초판)이 1,848종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96종(5.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판은 1,071종으로 작년보다 73종(6.3%)이 줄었다.

초판의 경우, 분야별로는 학습참고서가 434종으로 작년보다 228종이 늘었고, 그밖에 사회과학(66종)·순수과학(53종)·어학(18종) 등이 늘어난 반면, 아동도서(190종)·총류(63종)·기술과학(31종)·역사(30종) 등은 크게 감소했다.

한편 총발행부수는 초·중판을 합쳐 1,545만5,386부로 작년에 비해 57.3%(563만3,796부)가 늘었다. 따라서 1종당 평균발행부수도 작년의 3,391부보다 56.1% 증가한 5,294부로 나타났다.

88년1월중분야별 발행종수(초·중판 합계)는 다음과 같다.

▲총류 67 ▲철학 95 ▲종교 199 ▲사회과학 483 ▲순수과학 72 ▲기술과학 280 ▲예술 147 ▲어학 165 ▲문학 511 ▲역사 140 ▲학습참고서 463 ▲아동도서 297(계 2,919종)

양학연구협회 도서전 ▲제5회 터키 국제아동도서전 ▲제2회 제네바 국제도서전 ▲'88 미국 서적상협회 도서전 ▲제40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제2회 테헤란 국제도서전 ▲제9회 멕시코 국제서적박람회

### 출판전문인 海外研修대상자 선발

재단법인 출판금고는 88년도 출판전문인 해외연수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연수대상자 추천을 出協에 의뢰했다.

선발인원은 4명, 연수기간은 2~3개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선발기준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① 출판사에서 3년 이상 편집·기획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 근무자 ② 연수대상국 언어에 능통한 자이다.

### 제40회 東洋學연구협회 도서전

미국 미시건대 부설 동양학연구협회가 주최하는 제40회 국제도서 전시회가 오는 3월 25일~27일 3일간 샌프란시스코 '힐튼 앤드 타워즈' 호텔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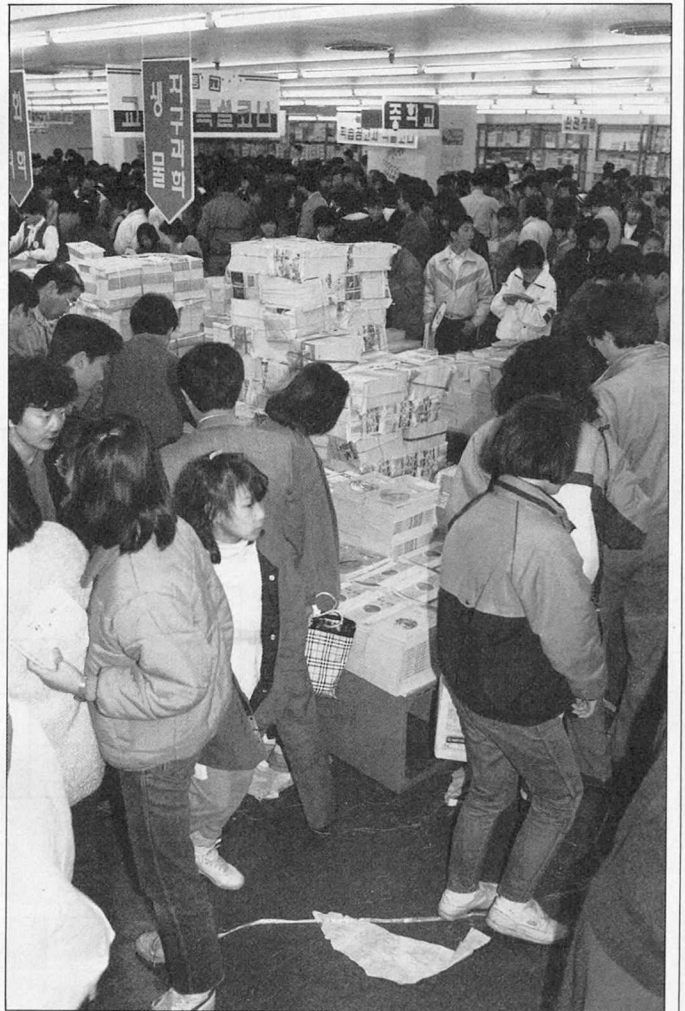
이 전시회에는 해마다 세계 60여 개국에서 2천여명의 동양학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出協은 9명의 대표단을 참가시킬 계획이다.

대표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황성욱(월간사진출판사 대표) ▲유광열(성화사 대표) ▲진한철(평범사 대표) ▲한승현(출협 고문번호사) ▲김봉모(대학당 대표) ▲최광열(미술문화원 대표) ▲송순현(정신세계사 대표) ▲고창진(엘리트 아카데미 영업부차장) ▲이광우(도서출판 엘리트 영업부차장)

### 三省이데아, 독일 인쇄회사 인수

삼성출판사의 모그립인 주식회사 三省이데아(대표 金奉圭)는 지난 87년 3월 독일의 인쇄전문업체인 피츠키社를 인수, 당초 적자경



3월 신학기에는 서점가의 '황금 계절'이다. 가장 인기있는 품목은 초·중·고교생들의 각종 학습참고서. 작년 1년동안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총1억5천5백만부의 책 가운데 47.8%(7천4백만부)를 학습참고서가 차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 시장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서점마다 오후가 되면 온통 학생들로 붐빈다.(교보문고에서)

## 알림

### 본지 '書評·신간소개' 案内

「출판저널」은 87년 7월20일자 창간호의 창간취지에서 도다짐했듯이, 국내에서 출간되는 다종다양한 책들 가운데서 중요한 책이나 소개할 가치가 있는 책들을 가려내어 어떤 형태로든 빠짐없이 소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모저모 시도해온 저자 인터뷰, 출판화제, 책의 뒤안, 북다이제스트, 취재서평, 종합서평 등 다양한 형식의 기획기사·취재기사와 記名서평, 신간안내, 200자 안내, 어린이책 들춰보기, 화제의 책, 이색출판 등 고정란이 바로 그 본보기입니다.

그러나 본지는 지금까지 신간도서의 情報源을 오직 出協의 1월본통계에 의존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一過性的인 1월본통계만으로는 취재 및 편집상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각 출판사는 신간도서의 소개를 희망하는 경우, 출간 즉시 2부를 보내주시면 본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실히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출판저널」 편집부

영 상태였던 것을 1년만에 흑자로 돌려놓아 화제가 되고 있다.

인쇄신문(88년 2월 12일자)에 따르면, 삼성이데아는 자본금 80만 마르크의 동 인쇄회사를 50% 출자(나머지 50%는 서독측 개인)로 인수했는데, 1년만에 매출액 315만 2천마르크에 26,500마르크의 흑자를 기록해 현지 경쟁업체들을 놀라게 했다고.

삼성이데아측은 피츠키社의 올해 매출목표를 500만마르크로 책정, 60만마르크의 흑자를 거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 出協 「회원명부」 발간

출협은 88년판 「회원명부」(수첩)를 발간했다.

이 명부에는 985개 회원사의 주소·전화번호·창립일자·출판분

야 외에 출협 定款, 각종 圖書賞 운영규정, 관련기관·단체 및 각 신문·통신·방송사의 출판담당 기자 명부 등이 수록돼 있다.

### 「인쇄문화」 회귀자료 수집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許喆鍾)는 작년 12월 11일 개관한 인쇄문화회관(마포 서교동)에 인쇄문화상설전시장을 마련할 계획 아래, 여기에 전시할 각종 인쇄관련 회귀자료를 찾고 있다.

인쇄협회가 추진하는 상설전시장은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교육장으로 만들어 일반에게 공개되리라고. 전시내용은 인쇄관계 각종 문헌이나 자료, 인쇄발달사에 획기적인 구실을 한 소형 인쇄시설 등이다. 연락처는 335-5881~3.